

● 오추(烏騮)마을 [津月面烏沙里]



•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 (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12	107	105	87	83	4	199	13	37	90	59

• 주산물(벼), 특산물(오이 · 밤 · 매실, 주소득원(벼))

• 마을연혁

오추마을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국가주요문헌에 오정소(烏頂所)라 기록되어 전하는데 고려(918~1392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당시의 마을 연혁은 알 수 없고 1600년경에는 광양현 동면(東面) 월포리(月浦里)지역으로 추정되며 1700년대 초기 이후에는 월포면에 속하였음.

1789년경(호구총수)에는 광양현 월포면 구포촌(鳩浦村)지역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왜정시대 행정구역 개편이전까지는 월포면 오추리(烏騮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하면(津下面)과 월포면(月浦面)이 통합되어 진월면(津月面)이 되면서 월포면의 오추리(烏騮里) · 추동리(秋洞里) · 사평리(沙坪里) · 둔탁리(敦卓里)가 병합되어 진월면 오사리

(烏沙里)에 속하였음.

1987. 1. 1기준(광양군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오사1구가 되어 오추(烏騮)라 하였고 현재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오추(烏騮)라 함.

• 마을형성 및 지명유래

오추마을은 약 520년전 청주한씨(淸州韓氏)가 처음 입촌하였는데 얼마동안 거주하다 어디론가 떠나고 그 뒤 약 485년전 경주최씨(慶州崔氏)가 입촌하여 왜란을 겪으면서 150여 년 동안 살다가 신기의 옛 마을인 고작골(古赤洞)로 이주하였으며 당시 이주할 무렵인 약 330여 년 전에 남원양씨(南原梁氏)가 이 고을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함.

오추마을 옛 이름은 문헌기록에 의하면 오정소(烏頂所)인데 이는 마을 입구의 산 형국이 까마귀 머리에 해당된다하여 이름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이름인 오추(烏騮)는 마을 뒷산모습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이름하였다고 전함. 일설에는 이곳 산세(山勢)가 옛날 중국의 항우(項羽)가 탔다고 하는 준마(駿馬)같이 날렵한 말같이 생겼다 하여 오추마(烏騮馬 : 항우가 탔던 말 이름)에 유래되어 마을이름을 오추(烏騮)라 하였는데 주민들은 오추골 · 오적리(烏赤里)라고도 하였다고 전함

오사리(烏沙里)이름 유래는 본래는 월포면(月浦面)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시 오추리(烏騮里), 추동리(秋洞里), 사평리(沙坪里), 둔탁리(敦卓里)가 병합하여 오추(烏騮)와 사평(沙坪)의 이름을 따서 오사리(烏沙里)라 하였으며 폐합당시에 진월면(津月面)에 편입된 것임.

• 자생조직

위친계(1972년 · 42명)가 있어 관혼상제시 상부상조하고 있음.

• 주요시설물

마을회관(1994년 준공, 2층, 조적슬래브, 경로 · 경모당), 마을유래비, 송추재(崇騮齋 · 남원양씨재각), 오추정(烏騮亭), 재건오사교회, 금오사, 행군수 김홍영공적비(1973년 건립),

• 문화유산 · 유적

▶ 행군수 김홍영공적비(行郡守 金洪永功績碑)

이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으며 홍수의 피해가 심했던 오사 · 신구평야에 제방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막아 안전하게 경작토록 한 공을 기리는



▲ 행군수 김홍영 공적비

김홍영(金洪永)군수의 선정비로 1973년에 세웠음.

▶ 『오추골도전말』 전설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로 양부자와 오추마 라는 이야기가 전해옴. 약 130여 년 전 삼천석지기 양부자가 살고 있었는데(광양·구례·곡성·하동·남해에 토지가 있어 속칭 5골 부자였다고 함) 어느 날 도사가 와서 이 집에 말(馬)이 정지(부역)문턱을 넘으면 망한다는 말을 하고 사라지기에 말(馬)을 타고 추적해서 알아보려 했으나 어디론가 종적이 막연하여 못 찾고 말았음.

그 이후 마(馬)씨 성을 가진 첩이 들어왔는데 재산을 몰래 마음대로 처분하여 가산이 탕진되자 부자영감의 아들이 하도 억울해서 서울남산에 가서 봉황불을 올리다 궁궐에 끌려가 문초를 받고 삼수 갑산까지 가서 귀향살이를 하고 운적이 있었다고 전함. 토지개혁전 광양일대 궁논(이우공 소유)과 양정수(서울 양정고교 재단) 등의 명의로 된 논이 상기 양부자 토지라고 전함.

한말부터 일제 때까지 김만수씨 가(家)에서 2천석을 함으로써 토지개혁전까지 본 마을에서 5천석이 집산되었음. 그래서 토지개혁 후 『오추골도전말』 (뜻말: 큰 부자가 살던 고을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다고 이야기 되고 있음.

▶ 오추팽나무

오사리 139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4. 9. 25일 도나무 10-58호로 지정되었으며 수령 340년으로 추정되는데 수고 12m, 둘레 2.9m, 면적은 50m²임

▶ 정자나무

진월면 오사리 125-1번지에 위치한 느티나무이며 수령 약 110년, 흉고 2.6m, 수고 12m로서 보호수 지정번호 15-5-6-10번임.



▲ 당산나무

• 마을출신 인물

- 최관현(崔琯鉉 · 1884년생) : 이왕공가(李王公家)광양토지관리인으로 약 30년동안 지냈으며 진월면장(1922. 11~1924. 3) 재임시 섬진강변 오사지구에 간척지를 조성하여 영세민구제사업을 실시함. 당시 수혜받은 주민들에 의해 현재 사평마을 입구에 자혜불망비가 세워짐.
- 양용근(梁龍根 · 1905년생) : 호적상 이름은 양용환(梁龍桓).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 졸업.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마을교회. 학교설립 추진으로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항일 투쟁운동인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광주 형무소에서 옥고 중 순교

- 양순석(梁淳錫 · 1935년생) : 봉강 · 태인초등학교 교장, 교육발전유공으로 황조근정 훈장 수상
- 경귀모(景貴模 · 1945년생) : 경남 하동군 화개면장
- 김일곤(金日坤 · 1946년생) : 울산광역시 기상관측 관상대장(사무관)
- 양재석(梁在錫 · 1946년생) : 법무부 사무관
- 양승표(梁承標 · 1949년생) : 서울서부관찰소 보호소 소장(사무관)
- 이영호(李永浩 · 1957년생) : 교육학박사. 경북대학교 교수
- 양성석(梁聖錫 · 1960년생) : 해군 대령
- 박장옥(朴長玉 · 1964년생) : 육군중령

• 특정지명과 그 의미

- 거북바위 : 금오사 부근에 위치한 바위로 생긴 모습이 거북이가 물을 먹으려 엉금엉금 내려오다 (갈구하강형 : 渴龜降江形) 경남 하동군 객길리 계항(鷄項)에서 닭이 울어대니 거북이 깜짝 놀라 머리를 움츠리는 형국이라 전하여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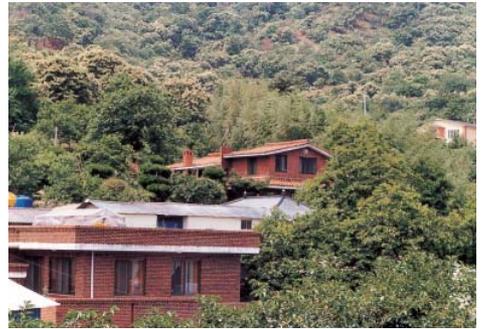
- 골목 : 오추마을 위쪽 산골짜기
- 국사봉 : 오추뒤에 있는 산. 국시봉이라고도 부름
- 굴박개(굴박굴) : 봉암산성 아래에 있었던 마을. 주요문헌인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옛 천포(穿浦)지역이라고 추정됨.
- 도덕골 : 마을 입구, 김홍영군수 공덕비가 위치한 위쪽 골짜기
- 도라물 : 오추입구 못 미쳐 수문있는 쪽으로 돌아 오는 곳에 있었던 마을
- 도라물들 : 황새모탕이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키며 도라물에 인접된 들이 됨.
- 도랫-물 : 오추 북쪽에 있는 마을
- 망덕거리 : 오추마을 회관에서 정자나무 사이에 있는 거리. 옛날 이곳에서 선박의 출입을 감시했다고 함.
- 방천안들 : 오사제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기 · 구동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마을 앞에서 섬진강쪽으로 길게 조성된 방천의 안쪽(마을쪽)에 조성된 들
- 번떡들 : 오추마을 앞에 있는 넓은 들
- 별바구 : 오추골 남쪽에 있는 바위. 별떼가 모여 있는 것처럼 여러 바위가 붙어있었는데 도로 확



▲ 국사봉

포장공사로 인하여 현재 많이 훼손되었음. 이곳 산성이름인 봉암산성(蜂岩山城)과 관련 있음.

- 별바구 선창 : 오사 수문(水門)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선창. 별바구 아래 산자락부근 지역임.
- 별바구들 : 오사 수문 안쪽의 별바구 아래에 있는 들
- 솔밭등 : 마을 뒤 서남쪽에 솔이 많이 조성된 산등
- 안들 : 오추마을 바로 앞에 있는 들(수로 안쪽)
- 오추(烏騮) : 오추골이라고도 함. 사평 서남쪽에 있는 마을. 오추는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 즉 산이 갈라진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가 있음.
- 오추재 : 오추마을에서 신덕으로 가는 고개. 오추골재라고도 부름.
- 옷골 : 오추마을 위쪽에 위치한 마을
- 월포면사무소터 : 송금리 신송마을 월포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월포면사무소터. 오사리 694번지 부근으로 추정됨.
- 정자나무 : 마을 회관 부근에 위치한 정자나무로서 함안조씨가 심었다고 전함. 마을에 부(富)를 가져오는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함.
- 제주판등 : 오사제방에서 오추마을 쪽에 별도로 위치한 제방
- 중간몰 : 옷몰 아래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마을
- 큰재 : 굴박개에서 봉암산성으로 넘어가는 재
- 황새모퉁이 : 오추마을에서 신구리로 가는 산모퉁이. 황새가 많았음.



▲ 월포면사무소터

• 특기사항

오추마을은 문헌상으로도 통일신라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을로 역사가 깊고 옛날 이곳이 섬진강을 끼고 있던 갯가였음을 고려하면 군사·행정·종교·교육 측면에서 다른 어느 고을보다 그 유래가 깊은 고을이었다고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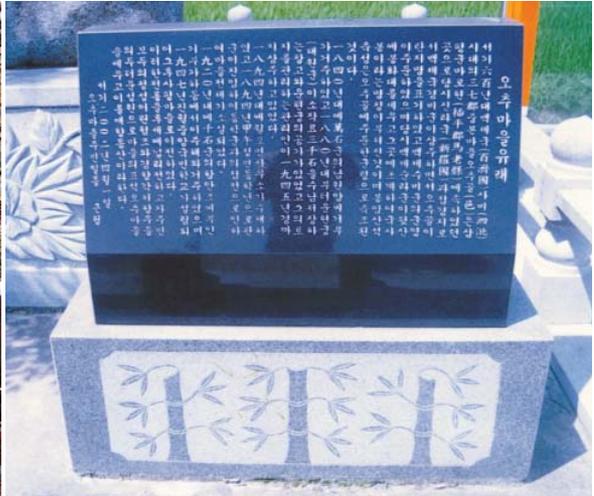
전하는 이야기로는 백제시대 산성으로 추정된 봉암산성의 축성을 이 고을 주민들이 조성하였다고 전하며, 조선말기에는 이 지역이 궁답(宮沓)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곳 궁답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곳에 상주하였는데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이란 난세를 당하여 마을 전체가 소실되는 불운을 겪었다고 전함.

또한 월포면사무소가 송금리로 이거하기 전까지인 1898년까지 이곳에 면사무소(오사리 694번지)가 있었고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들어와 예배당이 운영되면서 왜정시대와 6·25동란시에는 갖은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자가 배출되었고 1920년 육영학당 양명학당이 세워지면서 이 고을에 신학문이 수용되어 운영되어 오다 1947년 진월중앙초등학교가 설립되는 모체가 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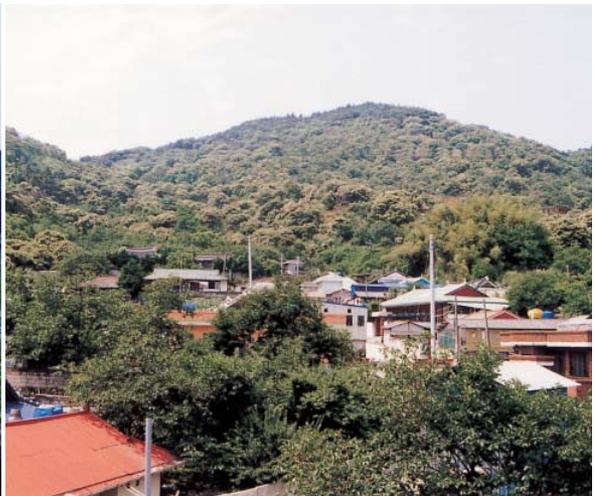
▲ 마을회관



▲ 오추마을유래비



▲ 방천안 들



▲ 골안(궁터, 곡창)

● 추동(秋洞)마을 [津月面 烏沙里]



•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 (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14	58	56	38	35	3	99	7	17	65	10

• 주산물(벼), 특산물(매실 · 감 · 밤), 주소득원(벼)

• 마을연혁

추동마을은 본래 광양현 동면(東面) 월포리(月浦里)지역으로 추정되며 1700년대 초기 이후에는 월포면에 속하였으며 1789년경(호구총수)에는 광양현 월포면 구포촌(鳩浦村)지역이었으며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왜정시대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광양군 월포면 추동리(秋洞里)라 하였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하면(津下面)과 월포면(月浦面)이 통합되어 진월면(津月面)이 되면서 월포면의 오추리(烏龜里) · 추동리(秋洞里) · 사평리(沙坪里) · 둔탁리(敦卓里)가 병합되어 진월면 오사리(烏沙里)에 속하였음.

1987. 1. 1 기준(광양군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오사2구 지역이 되어 추동(秋洞)이라 하였고 현재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법정리) 지역으로 행정리

상 추동(秋洞)이라 함.

- 마을형성 및 지명유래

추동마을은 약 170년전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처음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하나 문헌상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앞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추동(秋洞)의 옛날표기는 문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추동(楸洞)이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본래 우리토박이 이름인 ‘개래골·가랫골’을 한문식으로 표기하면서 「가래나무」에 착안하여 추동(楸洞)으로 하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가을 추자인 추동(秋洞)으로 바꿨다고 전하여 오고 있음.

한편 옛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마을의 원뿌리는 ‘가래골’ 즉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 산이 갈라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임. 산골짜기 마을=갈+골> 갈의골> 갈애골> 가랫골> 가래골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일부 주민들의 전하는 이야기로는 마을형국이 가래 즉 무명실을 뽑기 위해 사용되는 방직기구인 가래형국이라고도 하고, 『가래』를 고기를 잡아 가두는 가두리의 방언으로 마을모습이 가두리 형국이라고 전함.

- 자생조직

위친계(1927년·24명)가 있어 관혼상제시 서로 협조함.

- 주요시설물

마을회관(2001년 준공, 1층, 조적슬래브), 오사 보건진료소, 추동교.

- 마을출신 인물

- 김재현(金在鉉·1936년생) : 교육발전유공으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 김재원(金在原·1941년생) : 교육진흥공로로 국민포장 수상
- 조석재(趙惜在·1942년생) : 동광양시 민방위과장, 시민과장, 동광양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 김대원(金大元·1951년생) : 기업은행 순천지점장
- 박필순(朴必淳·1960년생) : 전남 제7대 도의원(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김충렬 : 기획예산처 사무관
- 김두열 : 국회재경위원회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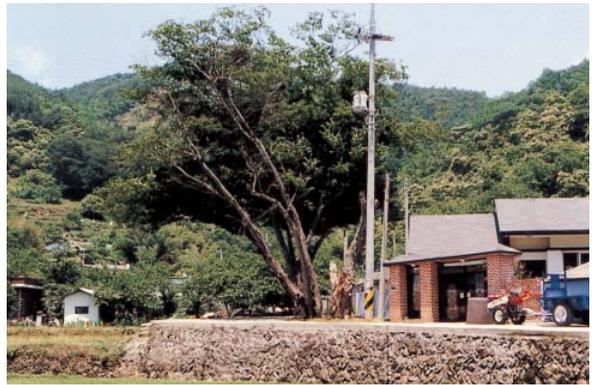
- 특정지명과 그 의미

- 도덕골 : 마을 뒤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 이곳이 무서운 곳이다하여 붙여진 지명. 즉 도적이 자주 나타나는 위험하고 무서운 지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방천안 : 경지정리 전의 마을 앞 방천안에 있는 들

- 뺨덕-들 : 추동 동쪽에 있는 들. 뺨덕(버덩)에 있음.
- 아랫골 : 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규모의 골짜기
- 작은가라골 : 할미봉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또는 골짜기를 말함.
- 추동(秋洞) : 추동리(秋洞里)라고도 하며 주민들은 개래골, 가랫골이라고 불리움. 산이 갈라진 곳에 위치한 마을 즉 갈골→갈의골→갈애골→가랫골→가래골로 변화되었는데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갈 또는 가래」를 「가을」이란 말이 변형된 것으로 보고 추(가을秋)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됨.



▲ 마을회관



▲ 정자나무



▲ 옛 구랑포 터(다리목)



▲ 삼봉산

● 사평(沙坪)마을 [津月面 烏沙里]



•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55	128	127	94	90	4	113	17	20	12	64

• 주산물(벼), 특산물(호박 · 오이), 주소득원(벼)

• 마을연혁

사평마을(윗물지역)은 고려시대(918~1392년)또는 그 이전에 당시 지방특수행정기관인 노을도소(奴乙道所)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이 지역에 염전이 있었음. 1600년쯤에는 광양현 동면(東面) 월포리(月浦里)지역으로 생각되며 1700년대 초기 이후에는 월포면에 속하였음.

1789년경(호구총수)에는 광양현 월포면 사평촌(沙坪村)이라 하였고 1872년에 왕명(王命)으로 제작된 광양현 지도에는 월포면 사평리(沙坪里)로 표기되어 있으며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왜정시대 행정구역 개편이전 까지도 광양군 월포면 사평리(沙坪里)라 하였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하면(津下面)과 월포면(月浦面)이 통합되어 진월면(津月面)이 되면서 월포면의 오추리(烏騮里) · 추동리(秋洞里) · 사평리(沙坪里) · 둔탁리(敦卓里)가 병합되어 진월

면 오사리(烏沙里)에 속하였음.

1987. 1. 1기준(광양군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오사3구가 되어 사평(沙坪)이라 하였으며 현재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사평(沙坪)이라 함.

- 마을형성 및 지명유래

사평마을은 약 420년 전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처음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하는데 ‘윗물’ 지역은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

마을이름유래는 옛날 마을에 모래톱이 있었고 지형이 평평하므로 사평(沙坪)이라고 이름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폐교된 진월중앙초등학교 앞에 사평장(沙坪場)이 섰었는데 현재도 그 터가 남아있음.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지역으로 장의 규모도 대단히 컸으나 장날마다 살인이 나므로 터가 세다하여 없었다고 전함.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전남·경남을 경계한 섬진강 하류 관문격인 이곳에 있었던 도선장은 충적지로 평평한 평원이고 서남북으로 4통 5달한 곳이므로 옛날 주민들이 물물교환과 생필품의 매매처로 이곳에 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생각됨.

- 자생조직

청년계(1975년 · 40명)가 있어 젊은이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친계(1945년 · 42명)가 조직되어 부모사망시 상부상조하며 장례를 치름.

- 주요시설물

마을회관(1997년 준공, 2층, 조적슬래브), 모원재(慕遠齋 · 진주강씨 재각),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장, 사평교회, 최관현자혜불망비, 부인 함안조씨 자선불망비

- 문화유산 · 유적

- ▶ 당산나무

진월면 오사리 1305번지에 위치한 팽나무이며 수령 약 340년, 흉고 4.2m, 수고 7m로서 보호수 지정번호 15-5-6-11번임.



▲ 최관현 자혜불망비

▲ 부인 함안조씨 자선불망비

• 마을출신 인물

- 강경진(姜敬進 · 1926년생) : 진월남 · 북초등학교 교장, 교육발전유공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김찬성(金贊成 · 1941년생) : 조달청 사무관
- 조춘식(曹春植 · 1945년생) : 고흥 망주초등학교 교장
- 김재민(金在珉 · 1951년생) : 육군본부 기획과장 · 운영과장 · 시설과장, 2군 사령부 지휘정보 처장, 육군준장

• 특정지명과 그 의미

- 가장골 : 뒷물에서 돈탁마을 경계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이곳에서 시체를 가매장 하였음.
- 골안 : 마을 뒤 골짜기. 마을 회관 뒤쪽에 위치하며 마을의 안쪽이 됨.
- 깃대봉 : 사평 · 돈탁마을 경계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옛날 이곳을 측량기점으로 삼았음.
- 도래 : 사평마을에서 추동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산모퉁이. 앞에 저온창고가 있는데 돌아가는 곳에 위치한 지역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번덕들 : 사평마을 앞의 버덩에 위치한 들
- 사평(沙坪) : 돈탁(뚝태기) 남쪽 별판에 있는 마을. 모래톱이 있었음.
- 사평나루터 : 사평 동남쪽에 있었던 나루터.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방촌으로 왕래하였음.
- 사평장(沙坪場)터 : 사평에 섰던 사평장의 옛터
- 순천-뚝명 : 사평 북쪽에 있는 뚝명. 순천택(順天宅)이라는 부인이 빠져 죽었다하여 유래된 지명
- 신방촌-나루터 : 사평 동남쪽에 있는 나루터.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방촌으로 건너가는 길목이 됨.
- 오사리제방 : 사평 동쪽에 있는 제방. 이 제방 축조로 인하여 매년 홍수피해가 심하던 오사 · 신구 평야의 들을 안전하게 경작하게 되었으며, 설치한데 공이 큰 김홍영 군수의 「行郡守金洪永功績碑」가 1973년 오사리입구인 굴박개(옛 지명 : 천포)에 세워졌음.
- 옷-사평 : 사평 북쪽에 있는 마을. 사평 위쪽이 됨.
- 뒷물 : 현 사평마을이 설촌(設村)되기 전에 있었던 마을. 사평-돈탁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사평 마을 위쪽에 위치함, 문헌에 의하면 통일신라 말~고려시대 노을도소(奴乙道所)가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됨.
- 진등 : 골안 위쪽에서 마을 앞 들판 쪽으로 길게 쭉 나온 산등



▲ 사평 나루터

• 특기사항

오추—사평마을 경계지역에 위치한 산의 모습이 「仙人讀書形局」 즉 선인이 독서하는 형국이라고 전해오는데 이러한 연유로 산아래 진월초등학교가 있고 책을 다루는 예배당 등이 소재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음.

오추마을에 비(碑)가 두 개 있었는데 전에는 다리목인 추동다리부근에 있었으나 교량확장공사로 인하여 이곳의 비를 옮겨 오추—사평경계지역(노인정부근 도로변)에 부인 함안조씨적선비(夫人 咸安趙氏積善碑)와 최관현자혜불망비(崔瑄鉉慈惠不忘碑)가 있음.

최관현은 진월면장 재임기간(1922~1924)에 현 오사제방이 구축되기 전에 사평—오추간에 간이제방을 구축, 200여 두락을 개간하여 어려운 주민들에게 경작토록 하는데 공헌하였음.



▲ 마을회관



▲ 정자나무



▲ 당산



▲ 옛 사평장터

● 돈탁(敦卓)마을 [津月面 烏沙里]



•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52	76	76	43	41	2	161	18	23	68	52

• 주산물(벼), 특작물(양상추 · 수박), 주소득원(벼 · 재첩)

• 마을연혁

돈탁마을은 부근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됨으로서 기원전 4000년경에 이미 이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던 마을임. 문헌상 기록에 의하여 연혁을 살피면 1600년경에 광양현 동면(東面) 월포리(月浦里)지역으로 추정되며 1700년대 초기이후에는 월포면에 속하였음.

1789년경(호구총수)에는 광양현 월포면 전탁촌(錢卓村)이라 하였으며 1872년 왕명(王命)으로 제작된 광양현지도에는 월포면 돈탁리(敦卓里)로 표기되어 있고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왜정시대 행정구역 개편이전까지는 광양군 월포면 돈탁리(敦卓里)라 하였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하면(津下面)과 월포면(月浦面)이 통합되어 진월면(津月面)이 되면서 월포면의 오추리(烏騮里) · 추동리(秋洞里) · 사평리(沙坪里) · 돈탁리(敦卓里)가 병합되어 진월

면의 오사리(烏沙里)에 속하였음.

1987. 1. 1기준(광양군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오사4구 지역이 되어 둔탁(敦卓)이라 하였고 현재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둔탁(敦卓)이라 함.

- 마을형성 및 지명유래

신석기시대 마을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전하는 이야기로는 약 520년전에 백(白)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입촌하였다고 전하나 선산이 없을뿐더러 현재 백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음. 그 뒤 약 420년전에 김령김씨(金寧金氏)가 정착하였는데 현재도 김령김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음.

마을이름은 신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던 거북등에서 유래함. 이곳은 둔덕을 이루고 있어 볼록하고 밋밋한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볼록한 모양」인 「뚝」을 연상하여 처음에는 「뚝테기」 또는 볼록하게 「돌아났다」 하여 「뚝테기」라 한데서 마을이름이 연유된 것이라 생각됨.

뚝테기·뚝테기가 발음상 부르기 쉽게 연음화되어 「돈테기」로 되어 이를 한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음차되어 「전(錢)」 「돈(敦)」으로 바뀌어진 것이라 추리할 수 있음. 그러므로 마을이름이 뚝테기·뚝테기→돈테기→전탁(錢卓)→둔탁(敦卓)으로 변천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은 지금도 돈테기라고도 부름.

- 자생조직

위친계(1949년·24명)가 있어 부모 사망시 상부상조하여 장례를 치름.

- 자생조직

마을회관(1993년 준공, 2층, 조적슬래브, 경로당), 향보재(享保齋·금녕김씨 재각, 1961년 건립). 마을정자(龜仁亭), 은사 김영규 공적비

- 문화유산·유적

- ▶ 둔탁패총(貝塚)

신석기시대 유물이 산포된 지역으로 마을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구릉이 있고 이 구릉을 가로지르는 농로가 있는데 패총은 이 농로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음. 패각이 산재되어 있는 범위는 해발 10~15m에 해당되는 구릉 정상부와 경사면으로 약 100×200m에 달하며 잘 남아있는 부분의 두께는 약150m임. 수습된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편과 동물뼈·패각등이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편



▲ 은사 김영규 공적비

은 세션집 선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사질의 대토에 표면을 빗질한 흔적이 보임. 동물뼈는 사슴뼈가 대부분이며 꽤 작은 굴껍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풍치목

마을 앞 섬진강 제방변에 위치한 소나무 약 100여 그루이며 수령 약 250년, 흉고 2m, 수고 10m인데 미지정 보호수로 나무 주변에 자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훼손되고 있으므로 보호림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패총산포지(신석기시대)

• 마을출신 인물

- 박양숙(朴良淑 · 1918년생) : 효부상 수상, 수족불수의 시어머니를 임종시까지 27년간 정성을 다해 모셨고 형제 · 친족간에 화목을 도모하여 향리에 칭송이 자자했음.
- 안선남(安善南 · 1925년생) :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렵사리 모은 전재산 2억원을 선남장학회 설립 출연금으로 기탁하였음. 광양시민의 상수상(1999년)
- 김대업(金台業 · 1935년생) : 체신청 서기관 · 부산우체국장
- 박수묵(朴秀默 · 1941년생) :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인천 부평구 구청장(1998), 지역발전유공으로 홍조근정 훈장(1995)수상
- 김종규(金宗圭 · 1942년생) : 광양군의회 초대의원, 광양시의회 초대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안영칠(安永七 · 1944년생) : 제5대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재단법인 선남장학회 이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 국가보안기술 연구원 상임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박봉묵(朴奉默 · 1947년생) : 광양시 제5대 중마동장 · 제4대 성황동장, 광양시 세정과장 · 환경관리과장
- 김성규(金成圭 · 1948년생) : 대구 계명대 교수 · 사회학 박사
- 김성국(金成國 · 1953년생) : 인천국제공항 경찰서장, 경기도 광명 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
- 김용철(金容喆 · 1955년생) : 국방부 서기관
- 김종국(金鍾國 · 1956년생) : 중소기업청 총괄과 사무관 · 중소기업청 시장개발과 사무관
- 김인규(金仁圭 · 1965년생) : 공학박사

• 특정지명과 그 의미

- 가장골 :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옛날 가장터였다고 전함.
- 거북등 : 마을 좌측. 북동쪽에 있는 산등성이. 거북이가 물을 먹으려 었드린 형국임(갈구형-渴龜形)
- 구인정(龜仁亭) : 1998년 마을 앞에 설치한 마을정자, 주민자력으로 건립되었으며 마을주민의 쉼터가 되고 있음.
- 깃대봉 : 마을 서북쪽(백운산 쪽) 제일 높은 산봉우리. 측량기점으로 삼았음.
- 나룻개 : 마을앞 옛 나루터에 있었던 마을
- 둔탁(敦卓) : 뚝태기, 둔태기, 전탁 등으로 불리어 왔음. 원뜻은 뚝태기 즉 둔덕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의미가 있음. 사평 서북쪽에 있는 마을
- 둔태기 나루 : 둔태기 앞 섬진강가에 있었던 나루터. 하동읍 목도리로 건너 가는 길목이 됨.
- 뽕재 : 둔탁의 서쪽에서 신구리로 가는 큰 고개인데 큰재라고도 함.
- 뒷골 :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본마을의 뒤쪽에 위치함.
- 새미등 : 마을 서북쪽에 위치하며 옛날 이곳에 샘이 있었던 산등성이
- 서당골 : 마을 서쪽. 옛날 서당이 있었던 골짜기
- 소리등 : 충선등에서 충을 쓴 충소리가 들렸던 산등으로 풍수지리상의 지명임.
- 송림 : 마을 앞에 있는 소나무군. 100여 그루가 있어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음.
- 열두모퉁이 : 거북등 북쪽에 있는 산. 열두모퉁이로 되어 있음(둔탁~금동)
- 절터골 : 큰재 부근에 위치하며 옛 공동묘지로 가는 곳이며 사기동(寺基洞)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이 지역에 절이 있었다고 전함.
- 조래등 : 열두모퉁이에서 내민 산등. 조래같이 생겼으며 노총각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청룡등 : 마을 남쪽, 현재 구인정이 위치한 자리끝, 내리뽕은 산등이 마을의 좌청룡이 되는 지역
- 충선등 : 거북등 뒷산. 충같이 생겼다 하여 붙인 이름으로서 충싼등이라고도 부름.



▲ 거북등



▲ 구인정

· 한층 :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마을로 큰마을이란 의미가 있음.

• 특기사항

이 고을 소나무 숲은 일대장관을 이룸. 중종 23년(1528년) 광양현감인 박세후(朴世煦)가 광양 고을에 부임하고서 각 고을을 순방하던 중 마을앞 제방에 우거진 송림을 보고 광양8경의 하나로 지정하였다고 전함. 현재 100여주가 있어 마을의 경관뿐 아니라 방풍림의 구실도 하고 있음.

1999년 마을앞에 설치된 마을정자인 구인정(龜仁亭)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하고 있음.



▲ 마을회관



▲ 뚝배기 나루터



▲ 소나무 숲



▲ 갯조개 잡는 모습

● 신기(新基)마을 [津月面 新鳩里]



•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 (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8	45	43	28	28	-	233	7	23	195	8

• 주산물(벼), 특산물(매실 · 감 · 밤), 주소득원(벼)

• 마을연혁

신기마을은 본래 광양현 동면(東面) 월포리(月浦里)지역으로 추정되며 1700년대 초기이후에는 월포면에 속하였으며 1789년경(호구총수)에는 이 지역에 고적동(古赤洞)과 신촌(新村)두개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왜정시대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월포면 신기리(新基里)라 하였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하면(津下面)과 월포면(月浦面)이 통합되어 진월면이 되면서 월포면의 구동리(鳩洞里) · 신기리(新基里)가 병합되어 진월면 신구리(新鳩里)에 속하였음. 1987. 1. 1기준(광양군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광양군 진월면 신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신구1구가 되어 신기(新基)라 하였고 현재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법정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신기(新基)라 함.

- 마을형성 및 지명유래

신기마을은 약 470년전 경북 경주에서 최(崔)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신기마을 앞에 위치한 안산(案山)에 처음 입촌하여 살다가 양지 바른 곳인 고적동(古赤洞:고작골)으로 이주한 후 마을이 형성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오다 처음에는 이곳 일부주민들이 현재의 마을로 이주하게 되어 점차 마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지금도 고작골(고적동)에는 2가구가 살고 있음.

신기(新基)마을은 새롭게 자리를 잡아 이루어진 마을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옛날 배나무가 있어 배나무골이라고도 부름.

신구리(新鳩里)이름 유래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시 구동리(鳩洞里)와 신기리(新基里)를 병합하여 신기(新基)와 구동(鳩洞)의 첫글자를 따서 신구리(新鳩里)라 하였음.

- 자생조직

위친계(1960년 · 25명)가 있어 관혼상제시 서로 협조하고 있음.

- 주요시설물

마을회관(1996년 준공, 2층, 조적슬래브), 모양재(慕陽齋 · 진양정씨 재각. 1980년 건립), 경덕사

- 문화유산 · 유적

- ▶ 당산나무

진월면 신구리 108번지에 위치한 서어나무이며 수령 약 200년, 흉고 3.5m, 수고 12m로서 보호수 지정번호 15-5-6-12번임.



▲ 당산나무

- 마을출신 인물

- 조현옥(趙顯玉 · 1924년생) : 육군중령, 전투유공으로 금성충무무공훈장(1950. 12. 30), 은성화랑무공훈장(1963. 1. 16), 무성화랑무공훈장수상(1963. 5. 29)
- 조재관(趙在寬 · 1941년생) : 광주광역시 동부 소방서장. 국가사회발전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수상(2004. 12)
- 정현오(鄭鉉吾 · 1941년생) : 부산시청 서기관

- 특정지명과 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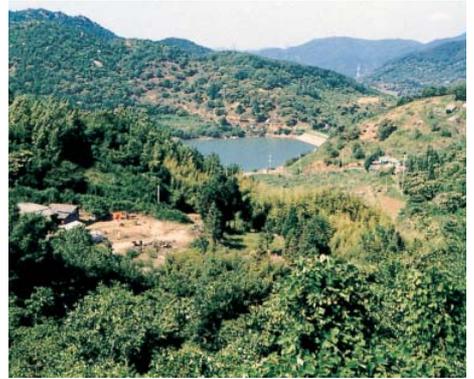
- 고작골 : 신기마을에서 경덕사(절)로 가는 부근에 있는 산골짜기. 이곳에 고적동(古赤洞)이란 마을이 있었으며, 현재는 절터흔적으로 기왓장이 흩어져 있는데 부근에 지금 2가구가 살고 있음.

- 금안동 : 신기마을 서북쪽에 위치하는 옛날 금굴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 이곳을 넘으면 마동마을에 속한 강대징이가 위치함,

- 깨구리바구 : 신기마을 남서쪽에 있는 바위. 깨구리 같이 생겼음.

- 다리목 : 신기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 대밭등 : 수락산 밑에 있는 산등성이. 전에 대밭이 있었다고 해서 죽전등(竹箭燈)이라 부르기도 함.



▲ 금안동

- 대숲-밀 : 신기 동북쪽. 대숲 밑에 있는 들

- 대청앞 : 신기 북쪽에 있는 들. 부자집의 대청앞같이 들이 평평하고 널찍하게 생겼음. 월포면 지역 일때는 대청앞 뒤에 물레방아가(신구리 504번지) 있었는데 신기·구동 두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방아를 찼었음.

- 도깨비등병 : 다리목 동쪽에 있는 등병. 사람이 자주 빠져 죽었는데 날이 꺾으면 도깨비불이 보인다고 이야기되고 있음. 현재는 등병이 없어졌음.

- 도덕-바구 : 신기 서쪽에 있는 바위. 전에 도둑이 숨었다 함.

- 매-봉 : 신기 북쪽에 있는 산. 매 형국이라 함. 높이 220m임.

- 매봉등 : 매봉에 있는 산등

- 반사등 : 깨구리 바위 앞에 있는 산등. 뱀이 꼬아리를 틀고서 머리를 내밀어 깨구리를 삼키려는 형국이라고 전함.

- 배나뭇골 : 신기마을 이름의 별칭. 배나무가 있었음.

- 백로하강(白鷺下降) : 신기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산의 형국. 백로가 머리를 내밀고 내려앉은 모습이라고 전함. 풍수지리상 이와 관련하여 이곳에 저수지가 생겼다고 이야기되고 있음.

- 비녀바구 : 신기저수지 바로 뒤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 비녀같이 생겼음.

- 산숫골 : 산수가 좋은 신기 서쪽의 골짜기

- 새박골 : 마을 앞 건너편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 무당이 이곳 골짜기에서 묘를 파니 새가 날아갔다 하여 붙여진 지명

- 수락산 : 신기 마을 뒷산

- 숲골 : 신기 저수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 숲거리 : 다리목 북쪽에 있는 숲

- 신금평 : 신기 동쪽에 있는 들

- 신기(新基) : 새터, 배나무골. 이목동(梨木洞)이라고도 함. 신기(新基)는 새롭게 자리잡아 만들어진 터(마을)란 뜻이고, 배나무골은 옛날 이 마을에 큰 배나무가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
- 신선바구 : 신기 북쪽에 높이 솟아있는 바위. 위가 넓고 평평한데 신선이 바둑을 두면서 놀았다고 구전되어 옴.
- 심청이 : 신금평 동쪽에 있는 들
- 안들 : 신기 동북쪽에 있는 들
- 장사추와(長蛇追蛙) : 개구리 바위 서쪽에 있는 산의 형국. 긴뱀이 앞에 있는 개구리를 쫓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함.

• 특기사항

마을앞에는 약 320년된 정자나무(서나무)가 있어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옛 산길이었던 도로는 확포장하여 주민교통편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진월방죽 마을 학교 앞→구덕마을 뒤→신덕마을 앞→신기마을 앞→구동마을의 동부선도로와 연결됨 (1999년에 이곳 도로 확장공사가 준공됨)

진월면으로 통합되기 전(1914년 이전)에는 행정구역이 진하면과 월포면으로 나뉘어 졌었는데 당시 이곳 2개 면민들 간에 매년 정례적으로 줄다리를 하였음. 그 장소로는 신기남쪽 구덕에서 동남쪽 망개재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진면(敗)은 이긴(勝)면의 세금을 부담하였다고 전하며 월포면이 이길 경우에는 진하면에서 월포면에 출가한 딸을 친정(진하면)에 못 오게 하였다는 일화도 전함.



▲ 신선바구



▲ 마을회관



▲ 고작골